



기획시리즈

변병호 /

임업연구원 산림곤충 과장

3, 4월의 해충 (X V III)

사사끼잎혹진딧물

이 해충은 뱃나무잎에 주머니와 같은 혹을 만드는 벌레로 나무를 죽이는 일은 없으나 새잎이 나온 후 곧 가해를 받으므로 피해있는 건전잎에 비하여 선명하게 증상이 보이므로 몇 개의 잎에 피해를 받아도 큰 피해를 받은 것과 같이 보인다.

○ 분포 : 한국, 일본

○ 가해수종 : 뱃나무, 쭈

○ 가해상태 :

약충이 잎 뒷면에서 즙액을 빨아 먹으면 그 부위가 오목하게 들어가고 잎 표면에는 엽맥을 따라서 1~수개의 주머니 모양의 벌레집이 형성된다. 이 벌레집은 길이가 20mm 폭이 8mm 정도되며 표면이 두터워지면서 굳어진다. 벌레집은 처음에는 황백색이나 시일이 경과될수록 황녹색 또는 홍색으로 변하고 최종에는 갈색의 미라가 되어 잎에 붙어 있으므로 미관을 저해시킨다.

○ 형태 :

무시태생(無胎生) 암컷의 체장은 1.6mm이고 체색은 담황색이며 유시태생(有胎生)의 암컷은

무시태생 암컷과 비슷하나 머리, 가슴, 다리는 검은색이다.

○ 생태 :

뱃나무 가지에서 월동한 알은 4월 상순에 부화하여 새로 나온 잎 뒷면으로 이동 기생하며 수액을 흡즙한다. 가해를 받은 잎은 표면에 벌레집이 생기는데 그 모

양은 봉지에 바람을 넣은 것과같이 부풀어 오른다. 벌레집은 약 20일간 비대 성장을 하며 잎뒷면에 개구부(開口部)가 있다. 벌레집내에 정착한 암컷성충이 낳은 약충은 약 1주간 성장을 한 후에 무시태생 암컷이 되어 계속 무시충을 태생(胎生)하므로 벌레집내에 단기간내에 황색의 성충, 약충과 백색의 탈피각으로 채워진다. 5월하순부터 6월중순에 유시태생 암컷이 나와서 중간기주인 쭈으로 이동하여 잎 뒷면에서 여름을 지낸후 10월에 유시산성(有胎生性) 암컷과 날개가 있는 수컷이 나타나 교미를 한후에 암컷이 기주식물인 뱃나무로 돌아가 가지에 알을 낳는다.

○ 방제법 :

벌레집이 형성된 후에는 벌레가 집속에 있어 약제를 살포해도 잘 죽지 않으며 벌레가 죽어도 벌레집이 그대로 남아 경관을 저해시키므로 벌레집이 형성되기 전인 4~5월(잎이나오는데)에 진딧물약(포스팜액제, 모노포액제, 피리모수화제, 아시스트유제등)을 1주간격으로 2~3회 살포한다.



▲사사끼잎 혹진딧물의 피해잎



▲벌레집 속에 있는 약충과 탈피각